

# 보도자료



보도분류	브리핑( ) 보도자료 제공( ✓ )
보도일시	<b>2021. 7. 5.(월)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</b>
작성과	환경녹지과
담당	과장 석상춘, 환경관리팀장 구승희, 담당 박미자(032-453-7272)

## “송도 조류 대체서식지 11-2공구 매립 등과 연계 추진”

산업부 개발계획 변경안 승인되면 하반기 기본계획 용역 시행

“국제적 생태도시로 탈바꿈…IFEZ 가치 상승에 기여 기대”

- 인천경제자유구역(IFEZ) 송도국제도시의 조류 대체 서식지 조성이 금년 하반기부터 11-2공구 매립 등과 연계돼 추진된다.
-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이달 중에 산업통상자원부가 조류 대체 서식지 조성 부지가 반영된 송도국제도시 개발계획 변경안을 승인하면 하반기에 기본계획 용역을 시행할 계획이며 앞으로 11-2 공구 매립 및 기반공사와 연계해 조성 공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.
- 조류 대체 서식지는 송도 11-2 공구 북측 연구단지 쪽 부지 177,497㎡에 얇은 수심의 개활습지를 조성하고 물새휴식지, 생태탐방로, 조류탐조대, 갯벌체험공원 등의 갯벌 생태계 체험형 공간을 조성하는 것이다.
- 인천경제청은 매립지 환경을 복원하고 새로운 습지를 만드는 조류대체 서식지 조성 사업이 송도를 국제적인 생태도시로 탈바꿈시켜 송도와 IFEZ의 가치를 높이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.
- 특히 멸종위기종을 포함한 물새를 보호하고 자연을 학습할 수 있는 공원

과 조류탐조대, 습지센터 등이 조성되는 것은 자연 생태의 중요성을 알리고 시민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등 지역 사회에도 큰 이익을 가져다 줄 것으로 보고 있다.

- 조류 대체 서식지 조성 사업은 송도 매립사업 환경영향평가에서 국제적 희귀 조류인 저어새와 검은머리갈매기 등을 포함하는 물새들의 서식지 파괴에 대한 대안으로 승인된 의무 이행 사업이다.
- 당초 저어새 번식지 및 기타 조류 휴식지 조성을 목적으로 송도 11공구 동측 갯벌에 인공섬 5,600m<sup>2</sup>를 조성기로 했지만 인근 남동 유수지의 저어새 섬과 기능이 중복되고 갯벌 및 조류 취식지 훼손 등을 우려한 지역 환경단체의 반대와 람사르 습지 국제협약에 위배 논란 등이 빚어졌다.
- 인천경제청은 이에따라 조류 전문가들의 자문과 국제워크숍 개최 결과 등을 토대로 인공섬 조성 계획을 취소하고 만조 시 물새 휴식지 기능의 대체 서식지 조성 계획으로 변경한 바 있다.
-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“올 하반기부터 공원 조성계획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우선 수립하고 이후 송도 11-2공구 매립 등 공사와 연계해 단계별로 추진, 조류 대체 서식지 조성을 통해 송도가 국제적인 생태도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”고 밝혔다.